**교제와 나눔**

**ㆍ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십자가 은총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당분간 가정예배는 계속되겠습니다.**

**ㆍ말씀편지:** 고난주간 매일 아침 ‘말씀편지’(음성)는 계속됩니다.

이를 활용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JC 캠프:** 올해 JC 캠프는 취소되었습니다.

**ㆍ생일축하:** David Bieber, 백승혁, 손교훈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막14:22-31 월/막14:32-42 화/막14:43-52 수/막14:53-72

목/막15:1-15 금/막15:16-32 토/막15:33-47 일/막16:1-20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5일** | **4월 12일** | **4월 19일** | **4월 26일** |
| **예배기도** | 나지홍 | 한상철 | 박상훈 | 조선형 |
| **말씀일기** | 민경웅 | 정정아 | 석혜진 | 백윤정 |
| **안내위원**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애찬봉사** |  |  |  |  |

**37-14호 2020년 4월 5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종 려 주 일 가 정 예 배 (Palm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부름/Eingangsgebet 렘17:14 |
| 찬송/Gemeindelied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29번 |
| 찬송/Gemeindelied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 기도/Gebet 나지홍 집사말씀일기/Bibeltagebuch 민경웅 집사찬양/Chor 81장 주는 귀한 보배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마가 14:22-31**  |
| 설교/Predigt **’새 언약의 만찬’**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찬송/Gemeindelied 149장 주 예수 보다 더봉헌/Kollekte 봉헌송: 박상훈 집사  |
| 광고/bekantmachung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축복/Segen 손교훈 목사**\*\*교회 구좌**Baek, Han-Jin Kim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BIC: DEUTDEDBDUE |

 |  |  |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휴전, 전투중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강화 등등도(프랑스 경우)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 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맘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에)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설교>**

 **새 언약의 만찬**(막14:22-31) 손교훈 목사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함께 밥 먹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온 성도들이 매주일 함께 애찬을 나누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온 몸으로 느끼고 있지요. 함께 먹는 게 그토록 소중한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지막 식사.

그 밤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실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며, 홍해를 건너 바로의 치하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첫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 이 순간도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 시간이 올해는 조금 특별하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둔 밤 흔들리는 등잔 빛 아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 빵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14:25–26)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후에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마침매 완성될 천국에서의 잔치에 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식사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밤은 그렇게 더욱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새 약속의 식사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갑니다(26).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27) 찬미하던 **제자들의 가슴은 콱 막혀** 왔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29)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특정하며 긴박감을 더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30) 베드로는 더욱 힘을 주어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31)

이제 **최후 마지노선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존경하는 선생님을 향한 **제자들의 죽음을 불사한 ‘질긴 의리’로 인해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결말지어졌으면 좋겠는데**….결국 제자들의 호기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버림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만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기회를 찾는 모습, 아마도 마가 자신이었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 베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51-52)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우는 모습까지.

아,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헛수고 였던가?** 선택부터 잘못 되었고, 3년간의 동행도 잘못 되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설 것을 아시고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제자들이 미우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것이 그들을 비난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의 모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허영과 자만으로 얼룩진, 여전히 어둠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경영을 이루기 위해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최후의 전선인 십자가 죽음에까지 끝까지 자신을 밀고 가시는 **예수님의 ‘질긴 사랑’**에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쉽사리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단호한 의지와 순종으로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제자들이 스스로 몰랐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내 믿음의 허약함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의 질긴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사랑, 그 ‘질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순전히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9:34) 마가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바른 고백을 들으신 후, 처음으로 자신이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럴 수 없노라고 항변할 때, “베드로를 꾸짖어….사탄아 물러가라”고 혹독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내 삶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내 연약함을,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알지 못하면, 온 몸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설사 큰 죄악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부정하여 주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은 ‘자기부인’을 하지 못했기에 ‘예수 부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되고, 내 절망적인 모습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상황이 매우 어두웠지만 어둠을 보지 않으시고 영광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불신앙이 아니라 이후에 순교까지 하게 될 믿음을 보셨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잔치할 그 날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날 밤 주님은 가장 빛나는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여도, 내 마음 속, 온 세상이 다 어두운 듯 보여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피흘리기까지 자신을 통째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던 나를 사랑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28)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부활 후에(2x)**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총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진정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보지 말고, 주님의 회복의 은총에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의 어둠에 절망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이 함께 잔치할 그 날을 보게 하소서. 어둠 속에 이미 와 있는 빛, 우리 주님만을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